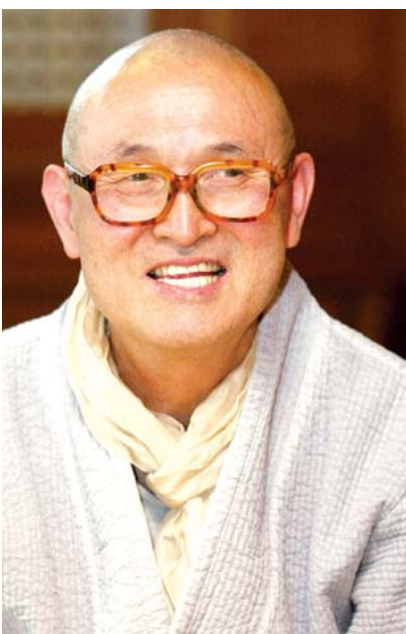


베푸는 마음에 '행복' 있지요

선지식을 찾아서

정락



정락 스님 (용인 만의사 울주)

1월 6일 새해 첫 정기법회를 봉행하는 인양한 마음선원 본원을 찾았다. 매달 첫 주 법회에서 법문하는 정락 스님을 뵈기 위해서다. 인터뷰를 극구 사양하던 스님은 법문을 듣고자 하는 기자의 청은 들어주셨다.

스님이 한마음선원에서 법문하기 시작한 것이 올해로 벌써 20년째다. 1981년 첫 법문을 시작했다. 올해 철수를 맞은 스님의 한 달은 법문 일정으로 빼곡하다. 5일에도 동국대 정각원 토요법회에서 법문했다. 매달 음력 초하루 화성 운주사, 초삼일 천안 용화사와 안산 화림선원, 8일 반야사, 18일 청원사 등이 기본 일정이다. 법문 요청이 들어오면 어디든 간다. 건강할 때 힘닿는 데까지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불법을 들려주는 것이 스님의 원이다.

새해 첫 법회에서 한 해를 살아가는 마음가짐과 어떻게 불자답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말씀한 정락 스님의 법문을 옮긴다.

글=강지연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 평소 살아나가면서 생각했던 것,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성취하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데도 고정관념에 얽매어 어렵게 생각합니다.

첫째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밖으로 행복을 찾아다니는게 잘못입니다. 원래 인간은 참 행복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집착한 악마가 행복을 훔쳐서 감춰놓은 거예요. 한평생 사는 것이 행복을 찾으려 다니는 겁니다. 행복인가 해서 찾으면 불행이 가져와요.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 못 찾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하거든요.

처음엔 사람이 극성스러워서 온 세상을 다 뒤져 행복을 찾아가려합니다. 그래서 찾고 찾고 숨기고 수십 번 했는데 매번 행복을 찾더라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악마가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뒤지면서 한 곳은 꼭 지나쳐가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거기 바로 각자의 마음속입니다. 밖에서, 없는데서 찾으려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행복은 내 마음 속에 있으니 찾기 쉬워 보이지만 이 세상보다 내 마음 속이 더 복잡해서 헤매게 됩니다. 마음속에도 감추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마음에 감춰나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도 지뢰밭 같아서 잘못 밟으면 불행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복'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다 먹기 전에 누가 오면 '먹을 복'이 있다고 합니다. 살펴보면 먹을 사람, 음식은 정해져 있는데, 주변 얻어먹고, 안 주변 뱀이 먹어야 합니다. 많이 얻어 먹으면 거지복이 많은 것이고, 많이 뱀이 먹으면 강도복이 많다고 저는 말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행복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주는 사람보고 '복 많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해요.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니 베풀면서 살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야 베풀면서 살 가능성이 생깁니다. 베풀어주는 마음이 복이예요. 이 베풀어주는 마음에 행복을 감춘 것입니다. 얻어먹는 게 복이라 생각하는 마음에서 찾으면 불행한 생겨요. 베풀어주는 마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베풀다는 것도 <금강경>에서 말하듯 베풀고도 교

만하지 않으며 배려해서 줬다는 생각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받는 사람도 빛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상대방을 빗쟁이로 만들어서는 안돼요. 내 생애 갖느라 고통 받게 하면 나쁜 일이지요. 그래서 무주상보시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순간 마음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무주상보시를 해야 더 큰 복이 온다는 걸 알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런데더라' 하면 소용없어요. '베풀다'를 급급한 해 마음에 두고 실천하세요. '베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찾아야 행복합니다.

생일이 뭐지 아세요? '태어난 날'이라고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낳아주신 날'이라고 대답해야죠. 같은 말이지만 어머니가 죽음을 무릅쓰고 고통 속에서 나를 낳아주신 날 아닙니까. 되레 어머니께 생일날 선물 사드려야 해요. 그런데 도리어 불효를 하지요. 생일선물 사나라, 생일상 차려라,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내 생일이라고 부모한테 받을 생각만 하지 어머니께 헤드릴 생각은 안 해요.

자기 생일날 어머니에게 미역국만 끓여드려도 큰 일 한 겁니다. 원래 자기 생일날 낳아주신 어머니 은혜를 갚기 위해 미역국을 끓여 드리는 것이예요. 낳아주실 때는 아기라서 못 끓여드렸으니까 말입니다. 생일날 미역국은 어머니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일이 될 때까지 생일선물 사드릴 돈을 매일 매일 저금하세요. 새벽에 일어나 저금통에 돈을 한 푼 넣으면서 '낳아주신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보살행을 하겠습니다'하고 감사와 자기가오를 빌면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매일 매일 효도하는 겁니다. 매일 100원씩 모으면 3만6500원, 500원씩 모으면 18만2500원, 1000원씩 모으면 36만5000원이 모입니다. 이렇게 모아서 선물 사드리고 남으면 부처님오신날에 부모님을 위해 등 하나 달아드리세요. 평생 가족들 등만 달았지 당신 위해서 등 하나 달아보셨어요? 돌아가시면 죽원문에서도 빼버리는데... 자기 생일날 효도하기 위해, 매일 효도하는 마음으로 실천하세요. 매일 그 정도 정진력 가지고 실천하면 생활에서도 성공합니다. 실천력과 지속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마음의 깊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일든 성공해



'받는 것' 보다 '주는 것'이 더 큰 행복 '무주상보시' 참 의미 깨닫고 실천해야 '중생심' 반대편에서 행복 찾는 한해되길...

요, 그런 정진력이면.

어떻게 무슨 생각하며 살아야 할지 몰라라면 계속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 초나라의 한 임금의 사냥을 가면 호화롭게 금화살을 쏘는 거예요. 사냥이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뿔뿔이 떨어져서 땅이나 나무에 박힌 화살을 찾아 가겠습다. 하루는 신하들이 어두워지도록 화살을 쏘는하는데 임금이 내일 와서 찾으라고 하니 그럼 늦는다고 신하들은 굳이 화살을 찾았습다. 그 임금이 말하길 '초나라 임금이 잃어버린 것을 초나라 백성이 주워 가는데 뭐가 아깝냐'고 했어요. 이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공자의 제자가 그 소문을 공자에게 전하니 공자가 말하길 그 왕은 천하통일 할 뜻이 아니라 그냥 초나라 왕 정도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잃어버린 것, 사람이 주웠으면 되지'하고 말해야 천하통일할 인물이라는 것이죠.

노자가 그 얘기를 다시 듣고, 공자가 사람들 다 망친다면 '꼭 사람이 주워야 할 필요가 있나' 등들이 주워도 될 것을, 그저 사람 욕심 많은 것만 말한 것'이라 비판을 했습다.

자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반야심경>에 '색불이 공'이 나옵니다. 그러면 금화살이 공입니다. 주는 것도, 욕심낼 것도 없어요. 금에 대한 집착 욕심이 다 깔려 있는 말입니다. 노자도 다 금으로 보고 한 말이에요. '금즉시공'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화살 하나도 부처님 경지에 오르니까 다르잖아요. 그런 경지로 자기의 마음을 바꿔가야 합니다. '천지현격(天地懸隔)'이라 그 마음의 차이가 시 작될 때는 별 차이 없지만 나중엔 하늘땅만큼 차이가 벌어집니다.

살에서도 그렇습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문제없이 일들이 쾌실하고 미운 생각을 가지니까 힘들게 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으로 행과 불행으로 결과가 달라 집니다.

새해 내 삶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당장 마음을 내세요. 얻어먹지 말고 베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그 반대편에 들어가 보면 다른 세상이 있어요. 중생심 속에는 행복이 없 습니다. 그 반대편에서 찾아야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한마음선원 신도회 임원들이 법회 전 정락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덕담을 들었다.

쌍화차

피로회복 감기예방에 좋은 쌍화차를 엄선된 약초로 정성들여 끓여 여러 불자님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일물산에서는 일산 수연제, 인사동 모란, 여의나루 하나샷집 등 전통차집과 각지에 계신 일반 고객 들께도 좋은 반응을 얻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알리오니 많이 애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팩 ▶ 35,000원 60팩 ▶ 60,000원 [배송료 포함]

❖ 氣를 바로 살면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십수년전 부터 인체·나무·동물에 어떤 에너지를 접촉했을 때 그 변화하는 기운을 시각 촉각 등을 통해서 느끼고 알게 되는 능력을 얻어 그동안 저에게 인연이 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지면을 통해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서 건강에 도움이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체질개선이 아닌 현재 상태의 기운을 통해 어떤 에너지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 내므로 즉시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원칙

내가 먹고 싶은 식품(곡식, 야채, 과일, 고기류, 생선류, 약, 약초, 건강식품)이 내몸에 맞는지 즉석에서 판별해 드립니다. O-Ring테스트나 L로드 팬드릭 같은 인위적인 매개체 없이 세포가 반응하는 것을 즉시 읽어내므로 틀림없습니다.

❖ 어떻게 하면 통증과 피로감 불편함에서 벗어날까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를 찾아내어 거기에 맞는 식품, 약초, 건강식품 등을 맞춰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며 특히 내몸에 맞는 가능성 맞춤 한방차를 이용하시면 탁월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적용가능 예

- ❖ 어린이:분유, 이유식 제품선택
- ❖ 아토피 허약체질:기피음식 분류
- ❖ 청소년:성장에 도움이 되는 식품 분류
- ❖ 공부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한방차 선택
- ❖ 직장인:스트레스, 피로회복, 숙취해소에 필요한 식품 한방차 선택
- ❖ 원인을 알수 없는 질병:어느 경락의 부조화인지 상담

건강식품, 약초 약재, 신약등을 연구하시는 분께는 인체 적용 반응을 이용하시면 높은 효과와 시간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공동연구도 가능합니다.

세일물산 02)965-4413